오늘 '26조' 체코 원전건설 계약 韓, 유럽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산업부 합동대표단, 현지 방문
두코바니에 신규 원전 2기 건설

고속철도·우크라 교통 재건 등
원전 매개체 경제협력방안 논의

'26조원 규모'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 본계약이 7일 체코에서 진행된다. 정부는 국회 대표단과 함께 현지를 방문해 이번 원전 협력을 계기로 산업·건설 등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국회 합동대표단이 신규 원전 계약 체결식 참석을 위해 6~7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를 방문, 고위급 아웃리치를 전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대표단은 경제부처 장차관급 인사와 국회의원들로 구성됐다.

정부 측에서는 대통령 특사단으로 임명된 안덕근 산업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강인선 외교부 2차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한다.

국회에서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박성민 의원, 강승규 의원, 박상웅 의원(이상 국민의힘),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주영 의원(개혁신당, 복지위)이 국회 특별방문단으로 동행한다.

대표단은 체코 총리, 상원의장을 만나 양국간 원전산업 협력을 매개체로 인프라, 첨단산업 등 양국이 보다 전략적이고 포괄적인 관계로 발전될 수 있는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국토부는 인프라 분야에서 지난 9월 체코 교통부와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체코 고속철도 사업과 우크라이나 교통 분야 재건사업에서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본계약 체결식에는 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 원전 산업 관련 주요 기업과 자동차연구원, 로봇산업진흥원 등이 참석한다.

계약 체결에 따라, 한수원 등은 체코 프라하에서 남쪽으로 220km 떨어진 두코바니에 신규 원전 2기(두코바니 5·6호기)를 건설하게 된다. 체코 정부 사업비는 원전 2기 약 4000억 코루나(약 26조원)로 체코 역사상 최대 규모다.

한수원은 1000MW(메가와트)급 대형원전의 설계와 구매, 건설, 시운전, 핵연료 공급 등 건설 업무 전체를 일괄 책임지고,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한전연료, 한전KPS 등이 설계와 시공, 정비 등을 맡는다.

한수원은 이번 계약으로 체코 정부가 추가로 추진하는 테믈린 원전 2기(테믈린 3·4호기) 신규 건설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돼 최대 4기의 원전 수출이 기대된다.

이번 원전 수출은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에 두 번째다. 특히, 원전 강국인 유럽 시장에 첫 수출을 통해 유럽 원전 진출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지난 30일(현지시간) 체코 정부의 신규 원전 사업 본계약 체결 일자를 확정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체코 신규 원전사업 본계약 체결, 성공적인 계약이행과 적기 준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삼성SDI(사진 위)와 LG에너지솔루션의 인터배터리유럽 2025 부스 조감도. /각 사

K-배터리, 유럽서 정면승부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
'인터배터리 유럽 2025' 참가
컨테이너형 ESS 신제품 공개

유럽 배터리 규제와 AI·전력망 수요 확대 속에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정면 승부에 나섰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는 유럽 최대 에너지 전시회에서 친환경 규제를 겨냥한 신제품을 공개하며 현지 시장 선점 경쟁에 분주한 모습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사들이 오는 7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사흘 일정으로 열리는 '인터배터리 유럽 2025'에 참가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행사에서 유럽산 LFP(리튬인산철)셀이 적용된 20피트(ft) 표준 컨테이너형 전력망용 에너지저장장치(ESS) 신제품을 처음 공개한다. 이번 신제품은 3개의 모듈을 하나의 팩으로 결합한 스택형 구조로 랙을 구성할 때 발생하는 팩사이 간격을 최소화했다. 이를 통해 컨테이너의 한정된 공간에 최대한 많은 팩을 탑재할 수 있어 기존 제품 대비 뛰어난 에너지 밀도를 제공한다. 이 제품에는 폴란드 브로츠와프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인 최신 ESS 전용 LFP 셀 JF2S가 적용된다. JF2S 셀은 JF1 대비 약 2.7배 향상된 에너지 용량과 약 1만5000회에 달하는 초장수명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유럽 시장을 겨냥한 주택용 ESS 제품 'JF1R'도 함께 선보인다. 해당 제품은 유럽 현지 생산을 기반으로 빠른 납기와 안정적인 공급, EU 품질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 경쟁력을 갖췄다.

삼성SDI 또한 AI 데이터센터 UPS(무정전 전원장치)용 배터리와 신재생 발전 등과 연계해 사용할 수 있는 컨테이너형 ESS(에너지저장장치)를 실물 크기로 선보이며 이번 전시에 나섰다.

특히 삼성SDI는 UPS용 배터리 실물을 소개한다. 독자 개발한 UPS용 배터리 신제품 'U8A1'은 높은 성능과 최고의 안전성을 겸비해 AI 데이터센터에 최적화된 제품이다. 정전 시 비상 전원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전력 수요가 일시적으로 급증할 때 전력 품질을 안정화하는 역할도 한다.

이와 함께 삼성SDI는 'SBB 1.5'도 실물 크기의 LED 화면으로 전시한다. 'SBB 1.5'는 20피트(ft) 크기의 컨테이너박스에 배터리 셀, 모듈, 랙과 안전장치, 공조 설비 등이 설치된 제품으로, 전력망에 연결만 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한 대용량(5.26MWh) 통합형 완제품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美·中 관세협상 기대감, 亞 통화 강세"

>> 1면 '5월 내수지표…'서 계속

◆ "금리인하 실기론 부적절"

이날 이 총재는 금리인하 시기를 놓쳐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아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지난 4월 금리를 내렸으면 성장률 전망치가 바뀌었을 지 의문"이라며 "한두 달 금리인하를 여부를 두고 실기론이라고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거래는 ▲지난해 12월 6만 8216호에서 ▲1월 5만 2796호로 감소한 뒤 ▲2월 7만 677호 ▲3월 7만 8217호로 증가했다.

서울의 아파트 거래도 같은 기간 7291호→7287호→8830호→1만3592호로 늘었다.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면 주택을 구매하려는 사람을 늘어나고, 주택을 판매하려는 사람은 가격을 높여 집값이 오를 수 있다.

지난달 장중 1482.90원까지 치솟던 원·달러 환율은 지난 2일 오후 3시시 기준 1405.30원으로 내렸다.

이 총재는 "미·중 관세 협상이 잘 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아시아 통화가치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협상)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율 변동성은 끝난 것으로 보면 안된다"고 했다.

내수 회복과 수출 둔화 등 금리를 내려야 할 요소는 많지만 언제까지 얼마나 내릴 지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밀라노(이탈리아)=나유리 기자 yul115@